NET WORK

협회 · 회원사

(주)서신 신입회원 가입
(사)한국포장혀회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 개최
SKC(주) PI 필름 진천공장 준공
도레이새한(주) 대한민국생산성대상 수상

정책기관

산업자원부 무선인식 성능 인증시스템 구축 추진
창원시 농산물수출시책 최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EPR 제도 1조2천5백억원 경제 효과

유관단체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제8회 단합워크숍 개최
(사)한국물류협회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사)한국3자물류협회 창립총회 가져

업계동정

(주)신무림제지 '무림페이퍼'로 사명 변경
제지업계 종이포장재 약진 신바람
(주)LG생활건강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식품업계 대형마트 GAP 인증상품 판매 확대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알루미늄 호일 고급화 통한 성장형 기업 목표

조 성 중

(주)서신 대표이사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주)서신(대표이사 조성중)은 그라비어 인쇄 전문 업체이다.

1998년 전신(前身)인 서신물산(주)이 부도 나면서 1999년 5월 재탄생하게 된 (주)서신은 전 사원출자로 설립한 사원지주회사로 자율적이며 역동적인 회사를 목표로 품질, 가격, 납기에서 고객 감동의 실천 의지를 펼쳐나가고 있다.

25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기능인을 중심으로 전 사원출자로 설립된 (주)서신은 야쿠르트 은박지 캡, LID용 은박지를 비롯해 담배 내 포장용 접착 알미늄 박지, 초컬릿 포장용 은박지 등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쿠르트 은박지 캡은 1980년대부터 홍콩, 중국에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지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다.

1999년 5월 설립 이후 2000년도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주)서신은 이듬해 44억원, 2003년 60억원, 2004년 76억원 이상을 달성 했으며, 지난해 94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이루는 등 매년 25%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 올해도 전년 대비 26.85% 가량의 매출신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서신은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ISO 9001 : 2000 규격인증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목표로 연구 개발하여 해외규격 인증(FDA) 획득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서신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00년 9월에는 '식품용기의 뚜껑용 포장필름'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알루미늄 호일 가공 전문업체로서의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력하는 한편 사원의 교육 및 해외 연수를 통한 인재 양성과 대외기술자원(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과 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30-7
- ▶ 전 화 : 031-667-7735
- ▶ 팩 스 : 031-667-8810
- ▶ 생산품목 : 은박지 캡, 초콜릿 싸게지, 담배접합지, 권은지

(사)한국포장협회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 개최
82명 포장기술관리사 배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달 18일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nal)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한국포장협회가 올해 3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총 11주간 실시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는 총 90명이 수강을 신청했으며, 이 중 82명이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취득했다.

(사)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이사는 정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설명하고, 자격을 취득한 82명의 포장기술관리사들을 축하했다.

공 전무는 "'포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포장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포장기술관리사 자격 취득이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주)삼성잉크 개발부 김택수 계장이 1백점 만점에 96.2점을 획득 1등으로 수료했으며 (주)누벨피엔에스 김장순 씨, 목포대학교 김지혜 연구원이 각각 2등과 3등으로 수료, 우수성적 수료자로 선정돼, 상장 및 상품을 받았다.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nal)는 2004년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1백38명의 배출을 시작으로 2기 1백65명, 3기 1백9명, 4기 1백

▲ (사)한국포장협회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 개최

23명을 배출했으며 금번 5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협회는 연 2회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 연 2백여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함으로서 포장전문가의 역할을 부각, 포장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KC(주)

PI 필름 진천공장 준공

연산 3백톤 규모 양산라인 가동

SKC(주)(대표이사 박장석)는 충북 진천에 4백30억원을 투자한 폴리이미드(PI)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PI 필름은 IT,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 매년 12% 이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재로 SKC의 양산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PI 필름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KC는 진천공장 8만 5천여평의 부지에 연산 3백톤 규모의 PI 필름 양산라인 1호기를 2005년 4월 착공해 1년 3개월여의 공사 끝에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SKC는 1호기에 이어 2호기 증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2호기는 연산 6백톤 규모로 200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2호기부터는 1호기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C는 듀폰 · 카네카 · 우베 등 외국 PI 필름 메이커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향후 PI 필름 설비의 지속적인 추가 증설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폴리에스터필름과 PI 필름을 SKC 필름 사업의 양대축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박장석 사장은 "PI 필름 사업 진입으로 SKC가 종합 필름메이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IT,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필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KC는 2002년 산업자원부가 중기거점 과제로 선정한 PI 필름 개발에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참여했으며, 자체 개발한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처음으로 PI 필름 개발에 성공하는 등 신기술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달 4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지엠피

ECONOMIC 써멀라미 필름 개발 성공

지난 달 하순부터 필름 양산 출시

정밀 필름 생산 기술을 보유한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이 세계 최초로 열 융착 필름 20mic, 22mic을 출시했다.

ECONOMIC 써멀라미 필름은 세계 최초로 8mic CO-EXTRUSION 압출코팅을 2M 폭, 3백50m 속도로 작업한 필름이며, 두께 또한 3백나노메타로 콘트롤 생산한다.

유광은 4천m, 무광은 3천5백m로 출시한다.

(사)한국포장협회

9월 4일부터 내년 12월 2일까지 11주간 계획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가 주관하는 제6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이 9월 14일부터 내년 12월 2일까지 11주간 실시된다. 협회는 2002년 정부(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구축사업' 중 '포장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제안,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장단기 포장기술교육 14개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1차년도에 개발된 장기통신교육 '포장기술관리사'를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협회는 국내의 낙후된 포장기술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난 5기까지 5백여명을 배출했으며 향후 연간 1백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 종사자 및 개인의 경우 25만원이며,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는 20만원이다. 또한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12만원이다. 수강인원은 1백명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제6기 포장기술관리사 합격자들에게는 포장기술관리사증이 수여되는 등 실무포장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사)한국포장협회는 포장기술관리사들이 향후 국내 포장산업의 취업, 이직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전화 02-2026-8655/9 담당 김은혜)로 하면 된다.

교육 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05. 10. 24 ~ 29	• 포장개요 • 지류포장	06. 9. 4	06. 9. 16
제 2 주	06. 9. 11 ~ 16	• 플라스틱 포장재	06. 9. 11	06. 9. 23
제 3 주	06. 9. 18 ~ 23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06. 9. 18	06. 9. 30
제 4 주	06. 9. 25 ~30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06. 9. 25	06. 10. 7
제 5 주	06. 10. 9 ~ 14	• 방수, 방습, 방청, 완충, 중량물, 포장기법	06. 10. 9	06. 10. 21
제 6 주	06. 10. 16 ~ 21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06. 10. 16	06. 10. 28
제 7 주	06. 10. 23 ~ 28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06. 10. 23	06. 11. 4
제 8 주	06. 10. 30 ~ 11. 4	• 포장기계	06. 10. 30	06. 11. 11
제 9 주	06. 11. 6 ~ 11	• 포장과 환경	06. 11. 6	06. 11. 18
제10주	06. 11. 13 ~ 18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06. 11. 13	06. 11 . 25
제11주	06. 11. 20 ~ 25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06. 11. 20	06. 12. 2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06. 11. 27	06. 12. 9
최종심의			06. 12. 19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06. 12. 22	
수강자 소집교육 및 관리사증 수료		• 오전 : 오리엔테이션 • 오후 : 관리사증 수료	07. 1. 8	

도레이새한(주)
제19회 대한민국생산성대상 수상
에너지혁신 부문 명예의 전당 올라

도레이새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이 지난 6월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혁신 부문으로 수상했다.

KMA생산성위원회가 주최하고 KMAC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날 도레이새한, 금호산업, 한국마사회, GS칼텍스, LG필립스LCD, 호남석유화학 등 28개 기업이 상을 받았다.

종합대상은 도레이새한, 금호산업, 한국마사회가 수상했다.

종합대상 명예의 전당에 오른 도레이새한(주)은 화학소재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폴리에스터 필름, IT소재, 부직포 등 중핵사업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도레이새한은 고객만족, 지구환경보전,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선을 실천한다는 환경경영 방침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런 방침 아래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공장을 건설할 때부터 에너지 다소비 설비를 고효율 공정과 에너지절약형 설비로 대체해 설계해 왔다. 오염물질의 배출감소를 위해 청정연료인 LNG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원가부담을 지고 있지만 환경보전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레이새한은 에너지 절감과 배출물질 관리뿐 아니라 환경친화 제품 개발에도 노력한다. 식품용기, 전자부품 포장용기, 생활용기 등에 쓰이는 생분해성 PLA 수지와 시트를 개발,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를 사업화해 친환경제품의 확대 전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업자원부
무선인식 성능 인증시스템 구축 추진
RFID 기술 활용,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접촉하지 않고 사물의 정보를 판독하고 처리하는 기술인 무선인식(RFID)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공인된 인식률의 유지 등 신뢰성있는 성능의 보장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한국유통물류진흥원 및 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RFID 성능 인증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의 판독성능을 실제 적용환경에서 글로벌 기준에 따라 테스트 한 후 인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6개 기관이 RFID 국제표준기관인 EPC글로벌의 인정을 받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구축되는 것이다. 성능 인증사업에는 주요 유통업체 등도 참여, 민간중심의 RFID 보급 ·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FID 보급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월마트도 물류기지 근처에 테스트 센터를 설치, 자사에 납품되는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의 판독 성능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컨베이어 시스템 등 실제 물류환경과 관련 측정장비 등을 구축한 후, EPC 글로벌의 인정 프로세스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FID 관련 시장은 향후 2~3년 내에 크게 확대될 전망으로 그에 따른 관련 기기에 대한 성능 인증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성능 인증서비스사업은 RFID 기술 보급 확산과 관련 기기의 해외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 42개품목 신규발굴
기술 · 디자인개발, 해외마케팅, 홍보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기술 · 디자인개발에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주는 세계일류상품으로 냉장고 내상용 압출 ABS 수지와 내열 ABS 수지 등 42개 품목과 생산기업 49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제도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인 제품에 대해 기술 · 디자인 개발, 해외 마케팅, 홍보, 금융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은 각각 5백47개와 6백37개 업체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신규로 지정된 업체들의 올해 수출액이 각종 지원으로 인해 작년보다 34% 늘어난 2백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액(3천1백80억달러)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2010년까지 1천개의 세계일류상품 발굴하기 위해 매년 1백개 내외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는 한편 기존 선정 품목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 품목의 퇴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
농산물수출시책 최우수기관 선정
신규품목 개발로 수출 박차

경남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농산물 수출시책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제10회 수출탑시상식에서 최우수기와 포상 사업비 3천5백만원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수출촉진시책, 수출실적 및 신장, 수출추진, 자체예산투입, 농산물 안전성확보, 특수시책발굴 등 7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선별비, 포장개선비 등 수출가격 차액보전을 위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농단의 시설교체, 노동력 및 에너지절감사업 등 시설보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단감, 파프리카, 멜론, 국화 등의 수출을 꾸준히 늘리고 아스파라거스, 아프리카오이, 멜론 등 신규품목 개발로 수출에 박차를 가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농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특수시책으로 수출단지 CO_2 지원사업을 펼쳐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시켰고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

해 지역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창원단감 유럽특판행사를 가짐으로써 유럽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수출목표 대비 1백90%, 실적대비 1백67%의 수출신장률을 이뤘다.

향후 시는 국제간의 자유무역시대에 수출농가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2006년 신선농산물 수출 목표를 지난 해보다 55% 증가한 7백20만1천달러(채소류 3백79만1천달러, 화훼류 91만달러, 과수류 2백50만달러)로 설정, 수출농가와 협력해 수출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탑 시상식에서는 민간 수출탑 수상자로 북면농업협동조합이 50만불수출탑을 받는 것을 비롯, 농업인 김원년(대산면 제동리) 씨 등 11명이 각각 10만불수출탑을 수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EPR제도 1조2천5백억원 경제 효과

해마다 7~12% 증가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3년간 경제적 효과가 1조2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이치범)가 1지난 달 3일 발표한 'EPR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EPR 제도 도입 후 재활용률은 해마다 7~12%씩 증가하면서 모두 3백40만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2천4백39억원에 이르고, 2천7백명 이상의 추가 고용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또한 환경부는 EPR 대상 품목을 재활용하지 않은 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 6천8백44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EPR 제도는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의 1백15~1백3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로, TV, 컴퓨터, 냉장고 등 포장제품 등 17종과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등 4종 등 모두 21종이 대상이다.

식약청

캔용기 내부 코팅 물질 규격 신설

에피클로로히드린 0.5㎎ 이하로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중 합성수지제인 에폭시수지의 규격에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대한 용출규격을 0.5㎎/ℓ 이하로 설정하고 입법 추진한다.

식약청 용기포장팀에 따르면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주로 캔 용기의 내부 코팅용 에폭시수지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재질 중에 잔류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유럽연합에서 재질규격 1.0㎎/㎏ 일본에서 용출규격 0.5㎎/ℓ 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용기 포장의 안전성 확보 및 기준 규격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사)한국물류협회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다양한 실무교육 기회 제공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공인 물류관리사 및 물류업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교부는 물류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한국물류협회를 선정,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물류협회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4억씩 총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건교부는 물류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체험, 사례연구, IT실습 등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물류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물류관리사와 물류업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물류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3자물류협회

창립총회 가져

국제적 물류산업 발전 발판 마련위해 노력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화 및 3자물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3자물류협의회가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 추진기획단 후원으로 (사)한국3자물류협회(회장 최승락)로 지난 달 5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업계 관계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로지스(주) 임용구 대표이사가 임시의장으로 진행한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한국통운(주)의 대표이사이자 협회 창립 추진위원장이었던 최승락 회장이 공식 선출됐으며, 협회 임원진 선출 방법 및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기업 및 중소 3자물류업체 등 약 1백여개사가 회원 등록한 (사)한국3자물류협회는 앞으로 회원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과 권익보호 활동과 함께 기업물류 사업, 대 정부 사업, 회원사 관련 사업, 연구개발 관련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최승락 회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3자물류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 협회 창립으로 화주에게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국가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의 허브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아직까지 1, 2자물류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국제적 물류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3자물류협회는 지난해 3자물류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4월까지 협회 창립을 위한 모임을 지속한 결과, 지난 5월 17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이번 창립총회를 갖게 됐다.

한국포장기계협회

제8회 단합워크숍 개최

중국 문화 및 역사 이해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달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의 황산과 항주 등의 문화탐방으로 2006년도 단합 워크숍을 실시했다.

▲ *한국포장기계협회 제8회 단합워크숍 개최*

이 행사는 지난해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의 문화 탐방에 이어 8번째로 실시된 행사로 총 33명이 참가,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를 깊게 다지는 자리가 됐다.

회원들은 중국의 명산인 황산의 웅장함과 비취계곡, 항주의 서호유람, 영은사 및 육화탑 관광을 했으며 중국 4대 쇼 중의 하나인 1시간 소요의 송성 가무쇼를 관람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워크숍을 통해 중국문화와 역사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포장기계협회

2006년도 포장기계대상 심사 완료

경영관리 부문 (주)우원기계 조명래 사장 선정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달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7회 한국포장기계 대상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달 12일까지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접수 마감 하고 본 심사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영관리 부문에 (주)우원기계 조명래 대표이사를, 수출판매부문에 을성정공 오필제 대표를 선정했다.

▲ *한국포장기계협회 제8회 단합워크숍 개최*

(주)우원기계 조명래 대표이사는 지난 1984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작년 매출 56억을 달성했다.

조 사장은 기업의 안전성, 활동성, 수익성 및 인당 매출액이 뛰어나고 2006년 65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혁신을 통한 경영으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수출시장 확대로 최근 2년간 일본 미국 등에 53억원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산학협력의 일원으로 각종 기자재 활용제공 및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원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판매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을성정공 오필제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작년 매출 21억을 달성했다.

1996년 중동 요르단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그리스, 일본, 오만, 인도, 태국, 스리랑카, 가나, 맥시코, 푸에로토리코, 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2년 중국 상해공장을 설립(대지:1600평, 건평450평)하고 수평형 삼면포장기, 밴드실러 등을 생산해 중국내 판매 및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진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공장 면적제공 및 기계조립 지원 및 보관창고 등 각종 편의 제공으로 중국진출의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오필제 대표는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결정돼 중기청장 상으로 상신키로 했다.

한편 기술개발부문과 품질관리부문에는 2006년도에는 해당자가 없다,

한국포장기계협회가 매년 시행하는 본대상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여 금년 7번째로 오는 10월12일 제8회 포장기계인의 날에 중기청장이 직접 부상 4백만원 상당과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사)한국철강협회

회원사 IMF 이후 완전 정상화

심팩, 한합산업 인수

(사)한국철강협회(회장 이구택) 회원사들이 IMF이후 9년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기계 제조업체인 (주)심팩은 지난 달 3일 포항철강공단내 한합산업의 사명을 '심팩 에이앤씨'로 변경하는 CI 선포식을 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팩은 최근 법정관리중인 한합산업과 인수,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백70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한합산업이 심팩으로 인수 · 합병돼 정상화됨에 따라 한국철강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지난 '97년 IMF로 10여개 업체가 부도로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9년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한편, 한합산업은 지난 '59년 국내 최초로 합금철을 생산한 업체로 현재 4기의 전기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레스, 훼로망간, 실리콘망간 등을 생산해 왔다.

(주)신무림제지
'무림페이퍼'로 사명 변경
무림제지는 '무림SP' 사명 통일

제지 전문기업 신무림제지(주)(대표이사 김인중)가 사명을 '무림페이퍼'로 바꾸고 글로벌 제지기업으로의 도약을 밝혔다.

신무림제지는 지난 달 26일 모기업 무림제지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명을 '무림페이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CI와 슬로건도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CI는 미래를 향한 다리를 형상화한 브릿지(Bridge)와 무림의 영문 워드마크로 이뤄졌다. 영문의 블루컬러는 비전과 신뢰의 투명한 기업이념을, 브릿지의 그린컬러는 환경 및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념을 상징한다.

이와 함께 슬로건 'Bridging the Future'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림의 의지로 미래를 여는 다리, 고객을 향한 다리, 문화를 잇는 다리, 행복으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인중 사장은 "신무림제지는 모기업 무림제지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1백억원 이상을 들여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등 새로운 50년을 향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무림페이퍼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나는 만큼 경쟁력 강화로 국내 제지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제지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 50주년을 맞는 특수지 전문기업 무림제지도 '무림S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객들과 만난다. SP는 Special Paper의 의미를 갖는다.

이외 신동에너지와 오피스웨이, 무림물류 등 신무림제지 관계사들도 각각 '무림파워텍', '무림오피스웨이', '무림로지텍'으로 무림으로 통합된 새로운 사명으로 바뀐다.

부 문	원회사명	변경명
제지부문	신무림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제지	무림SP
에너지부문	신동에너지	무림파워텍
사무용품유통부문	오피스웨이	무림오피스웨이
물류부문	무림물류	무림로지텍
OA잉크부문	무림켐텍	무림켐텍

▲ 무림페이퍼의 새로운 CI

제지업계
'종이포장재' 약진 신바람
8백억대 시장 급성장

플라스틱 ·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체하는 기능성 종이포장재(보드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치킨, 아이스크림, 초밥, 컵라면 등 식품용 포장재에서 입에 넣어도 무해한 유아용 책자, 의약품 및 화장품 포장, 디스플레이 재료 등으로 쓰임새도 확대되는 추세다.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호르몬이나 형광물질 및 염소성분이 없는 무해성 종이포장재를 이용토록 하고 있어 수출도 유망한 편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포장재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 검출제품에 대한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보드지는 1백% 천연 표백펄프로 만든 고급 도공백판지의 일종으로 중국산에 점차 밀리는 일반 백판지에 비하면 일종의 블루오션이나 마찬가지로 한솔제지 '웰빙보드', 무림제지 'MGB', 한창제지 'DAB'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규모도 커졌다. 1, 2년 전 월 2천톤에서 올해 월 5천톤 규모에 연간 8백억원대로 급성장, 대표적인 흑자 지종으로 자리잡았다.

시작은 무림제지부터다. 무림은 지난 2002년 말 웰빙보드지를 업계 처음으로 개발, 안전종이 경쟁에 불을 붙였다.

한솔은 지난해 말 기존 웰빙보드에 은나노를 입힌 '은나노 웰빙보드'도 출시했다. 이는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의 신선도 유지 및 부패방지 기능까지 갖췄다는 설명이다.

국내 식약청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검사도 통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월간 판매량이 은나노 제품만해도 지난해 3백20톤에서 올 5월에는 4백60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철 한솔제지 마케팅팀 상무는 "식품용에서 고급 포장재인 화장품 및 의약품 포장재, 종이블럭, 교재물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기능성 웰빙보드의 시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무림도 2003년 월 20t 규모에서 현재 월 3백t 이상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중국, 호주, 유럽 등으로 수출도 시작돼 연말께는 판매량이 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중 무림제지 사장은 "식품용 포장재의 안전성 여부가 부각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제지는 기존 보드지에 이어 최근에는 황토를 표면처리한 '황토보드'를 개발, 담배포장용지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보드지는 아트지와 백상지 등 상업용 인쇄용지와 달리 1백% 표백펄프 제품이어서 판지 특유의 고강도를 자랑하면서도 아트지류의 인쇄적성까지 좋은 게 특징이다. 기술적으로도 코팅면을 빼고 3~6겹의 펄프를 겹치는 까다로운 공정이어서 중국업체의 추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아세아페이퍼텍(주)

안양공장 부지 1만 5백평 매각

공장용지로 사용

아세아그룹 계열사인 아세아페이퍼텍(주)(대표이사 우영호)은 지난 달 3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번지 외 5필지 소재의 옛 안양공장 부지를 4백38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31일에 조업을 중단한 안양공장 부지를 덕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1973년부터 안양공장에서 골판지원지와 크라프트지 등을 생산했으나, 설비의 노후화

로 인한 생산성저하로 조업을 중단하고 이번에 부지를 매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되는 안양공장 부지는 평촌 시가지와 4호선 금정역에 근접해 있으며, 면적은 3만5천92평방미터(약 1만5백평)로 지목용도는 "공장용지"이며, 공시지가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3백78억원이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24일 안양공장 기계장치를 25억원에 매각하는 등 부지매각을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현재 안양공장은 건물 및 기계장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공장 부지 장부가격은 2백80억원으로 회사는 약 1백58억원의 유형자산매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LG생활건강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차별화된 디자인 혁신 C&D 전략 일환

(주)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은 지난 달 1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2006년 LG생활건강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의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86개 대학에서 총 8백87점의 작품이 출품,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바디케어 브랜드 "비욘드"의 매장 인테리어를 출품해 대상을 받은 이여라(한성대 3)씨 등 총 11명이 본상을 수상했다.

▲ (주)LG생활건강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차석용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십여년 전까지 기업들은 생산성과 무결점을 위한 경쟁을 했고 지금은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래에는 아이디어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디자인은 기업의 진정한 공격 역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심사를 맡은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나건 교수는 "심사의 기본방향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의성, 환경 친화성, 실용성 등을 중시했으며 국제적 트랜드를 반영한 감성적 디자인에 비중을 뒀다"고 전했다.

이번 2006 LG생활건강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들은 용기부분의 경우 재료와 형태 및 기능면에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시험적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패키지 부분의 경우 다양한 표면 처리기법과 사용자의 편리성과 제작의 경제성을 고려한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LG생활건강 디자인 공모전은 1회때 2백50여건이던 출품작이 올해 9백건에 가깝게 늘어나 8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 용기 및 패키지 분야의 대표적 공모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LG생활건강 디자인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와 실제 LG생활건강의 제품 개발에도 활발하게 적용되며 참신한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디자인 공모전 담당자는 "평범한 디자인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회사의 전략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대형마트 GAP 인증상품 판매 확대

이마트 등 농산물 품질관리 나서

대형 마트들이 주요 먹을거리인 농산물 관리에 직접 나섰다.

대형 마트들이 최근 우수농산물관리(GAP) 제도 민간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하면서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확대와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형 마트들이 GAP 확산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대형 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려면 GAP 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GAP 제도란 농림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종자와 재배, 수확, 포장,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 관리 과정을 거친 우수 농산물을 표시하는 국제적 인증 제도다.

신세계 이마트는 앞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우 GAP 인증 제품만 판매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마트가 판매하는 농산물(수입 포함) 전체 매출의 약 92%를 차지하는 물량. 이마트의 올해 농산물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GAP 제도 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 농가, 농산물 관련 협력회사 등 70여 곳의 대표를 대상으로 GAP 제도와 인증방법에 대한 무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달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GAP 민간 인증기관으로 자격을 획득했으며 현재 일부 농가에 대해 인증 심사 중에 있다.

신세계 이마트 신선식품담당 정규근 상무는 "대형 마트가 적극 나서면 3~4년 안에 GAP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5월30일 GAP 민간 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총 1백87곳의 신청 농가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도 GAP 민간 인증기관 자격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롯데마트 야채팀 조정욱 MD(상품기획자)는 "신청 농가에 대한 실사를 거쳐 8월 중순에 거봉 포도와 방울토마토를 1호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07년까지 GAP 인증 상품이 전체 농산물 중 10% 가량으로 확대하고 점차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가들이 그동안의 영농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GAP 인증이 급속도로 확대되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나노업계
나노기술 안전성 도마
용도폐기시 환경 영향

미국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통해 나노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나노기술의 안정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달 18일(현지시각) EE타임스에 따르면 나노기술 연구자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나노 기술이 가전 · 컴퓨터 · 음식포장재 · 화장품 · 의류 ·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나노 재료는 그 유형만 7백가지가 넘고 제조 시설 수도 8백여개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나노 재료에 대한 안전 규칙을 마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드로우 윌슨 인터내셔널 센터의 '떠오르는 나노기술 프로젝트'의 최고과학고문인 앤드류 맨야드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나노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연간 10억달러의 예산 중 약 10%에 이르는 1천1백만달러를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 관련 연구에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리더십이 부족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마련과 포괄적인 연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맨야드는 이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최소 1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노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나노 재료의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 하원 과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나노 기술의 안정성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보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과학적 기준이나 정부 규제 절차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의회와 환경단체 및 나노 업계를 중심으로 나노 기술 및 관련 응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인체에 두드러진 해를 미치지는 않

는다. 하지만 나노 입자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인력에 피해를 준다거나 용도 폐기된 나노 제품이 매립지에서 분해될 때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동물 실험에서는 탄소 계통의 나노스피어와 나노튜브 등의 물질은 일반적 미립자와 달리 다람쥐 같은 설치류의 폐에 치명적 염증을 일으키거나 어패류의 기관 손상,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서생물과 토양 박테리아의 사멸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나노 재료는 극소 입자가 가지는 장점을 이용해 이미 가전제품에서 스포츠용품, 컴퓨터, 음식 포장재,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상품화했다.

'떠오르는 나노기술 프로젝트'의 디렉터 데이빗 레제스키는 또 "2005년에 3백20억달러 상당의 나노기술 관련 제품들이 판매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때문에 나노 기술과 그 응용 제품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시장 규모가 연간 1조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조은포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

연구 개발 필요한 각종 혜택 부여

(주)조은포장(대표이사 이기완)이 지난 달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에 선정, 인증서를 획득했다

조은포장은 지난 6월 9일 자가 평가지표에서 종합점수 829.4를 평가 받아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 기술신용기금을 통한 현장평가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신기술 마케팅 능력"등 심사에서 종합점수 787.8을 받아 A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획득은 골판지 및 상자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인증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자, 자동차, 정보화산업 등 연구를 필요한 산업에 편중된 환경 속에서 낙후된 골판지 제지, 상자 제조 분야에서 본 인증서 획득은 관련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은포장은 이번 인증서 획득으로 정부지원 사업 기술혁신과제, 기술이전사업, 대학간 산학협력과제 등 정부지원사업 동참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조은포장은 인증서 획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 지원하는 대학내 산학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대학내 연구실 공간 마련,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력과 연구 기자재 활용, 연구분야, 정보등 인프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등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9년 7월 까지 1차 개발 목표 골판지, 제지 관련 신소재 개발과 2차 개발목표 신제품 및 관련설비 분야 연구 및 개발, 3차 개발목표 신 디자인 연구와 경영, 판매마케팅 연구 목표 등 중장기 개발목표를 통해 21세기 포장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야심찬 계획을 추진 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값진 결과임을 당사의 기술혁신 추진 목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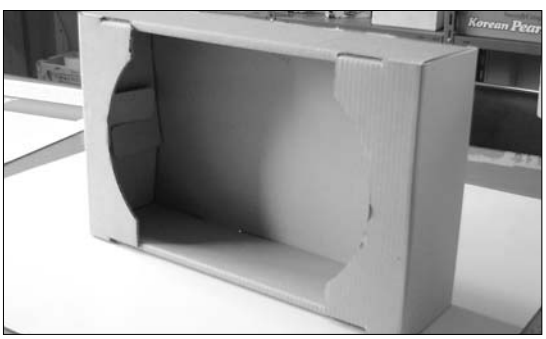
(주)조은포장
방수골판지 특허등록
벤처기업 인증 획득

(주)조은포장(대표이사 이기완)이 "방수골판지 및 이를 이용한 상자 제조방법"의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조은포장이 개발한 방수골판지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1백%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2004년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제지상자 박람회에 출품한 바 있다.

물에 의한 강도의 열화에 저항성을 갖는 골판지의 혁명을 이루는 제품으로 기존의 피라핀 왁스코팅을 벗어난 신 제조로 기술로 표면지 이면 부분에 라미레이팅(PE필름) 처리로 골판지 상자 내부로의 수분 침투를 1백% 방지한다.

또한, 물류간 우천시 물에 의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수인쇄 및 일반인쇄가 골판지표면에 가능하여 공정 절약이 가능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다.



▲ (주)조은포장이 특허등록한 방수골판지

이 제품을 통해 조은포장은 대외적으로 골판지 관련사업의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물 포장산업에 대혁명을 예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조은포장은 2006년 6월 26일 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기술기업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조은포장 관계자는 "동종업계 최초로 획득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낙후된 골판지 제조 산업도 기술개발 잠재성이 풍부한 기능성 골판지 개발과 신소재 개발로 기술형 제조산업으로 탈 바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택배서비스, 만능시대
여권택배, 김치택배 등

택배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배송만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얘기가 돼 버렸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요즘 택배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택배 만능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택배사들이 특화서비스란 이름을 붙인 취급품목은 무수하다. 여기에 계절 특수상품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셀 수가 없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택배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택배는 최근 국내 택배사들 중 처음으로 환전택배에 도전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외화를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현재 배

송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과 성남시 분당구 지역으로 국한돼 있지만, 고객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진택배는 지난 96년부터 택배회사 중 유일하게 여권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학 준비에 바쁜 고객들과 여권(비자)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지방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비자는 물론, 캐나다 비자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 요금(편도)은 서울 6천원, 경기 8천원, 그 외 지방 1만원 정도다.

김장철인 가을과 초겨울 무렵, 택배사들은 바쁘다. 평소 5%에도 못 미치던 김치배송이 70~80%대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산 김치파동이 발생한 직후엔 배달물량이 폭증하기도 했다.

사실 김장택배는 택배회사에게 있어 골칫거리 품목 중 하나다. 무게는 물론, 포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 그래서 택배사들은 전용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까지 해주고 있다.

KTX를 이용한 당일 택배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당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진의 당일 택배를 이용할 경우 부산 자갈치 시장의 싱싱한 활어를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맛볼 수 있다.

휴가철 맨몸으로 떠나는 바캉스 택배도 여름철 인기 서비스로 꼽힌다. 여름철 휴가시 무거운 짐을 휴가 예정지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현대택배 등 국내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택배는 피서지에 놀러온 고객들의 짐을 고객들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 주는 것은 물론, 피서지에서 짐을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빠뜨리고 간 고객들의 짐까지 찾아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대한통운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렌터카 서비스를 활용한 '제주도 렌터카+여행택배+펜션 패키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숙사택배'는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서비스 중 하나다. 방학을 전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기숙사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지방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현대택배와 대한통운 등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품목에 비해 운송 중 파손·변질 가능성이 높은 한약을 배송해주는 한약택배와 의류를 구김 없이 전달해주는 의류행거배송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택배사들의 이색 서비스 중 하나다.

식품업계
햄스빌 등 소비자 인기상품 선정
햄스빌, 신선도 확보

2006 상반기 소비자 인기상품 히트상품 부문에 햄스빌, 하루야채 등이 선정됐다.

대표적인 서양음식 재료였던 베이컨을 한국인의 밥상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백설햄스빌'은 베이컨이 특정 용도의 고정 수요시장이라는 육가공업계 고정관념도 깨뜨렸다.

백설햄스빌은 지난해부터 '밥, 김치 그리고 햄스빌 베이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고 캠페인을 벌이며 베이컨의 한국 음식화를 꾀했다.

느끼한 맛을 최소화해 반찬으로 어울리는 맛을

개발했고, 씨제이만의 생산설비를 활용해 자르고 포장해 신선도 확보에 성공했다.

소포장 및 작은 용량 상품을 내놓고, '아침에 베이컨' '두꺼운 베이컨' 등 제품군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어린이 요리교실, 창의교실 등 기존 육가공 업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문화 마케팅을 전개한 것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는 데 효과를 거뒀다.

햄스빌은 햄마을 또는 햄의 본고장을 뜻하며, 본고장 제품처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브랜드화 한 것이라고 씨제이쪽은 설명했다.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해 야채섭취가 필수라는 건 상식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음식 챙겨먹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야쿠르트의 '하루야채'는 야채 1일 권장량 3백50g이 들어가 있어, 한 병만 마셔도 하루 야채섭취량을 충족시킨다.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토마토와 당근 등 16가지의 야채가 98% 들어 있고, 무가당 · 무가염 · 무색소의 무공해 1백% 야채즙으로 갓 짜낸 듯한 신선한 맛이 살아 있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루야채'의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하루 13만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비만, 변비 등 각종 생활습관병을 걱정하는 현대인의 고민을 덜어주는 '하루야채'는 녹즙의 기능성은 유지하며 떨떠름한 맛을 제거해 맛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루야채'의 최대 장점은 매일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가정과 직장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에 손쉽고 꾸준하게 야채를 섭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농심
'제주삼다수' 부동의 1위
일괄 통합생산설비로 생산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는 1998년 3월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출시 6개월만에 국내 먹는 샘물 페트병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태초의 순수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라산 청정지역에 내리는 빗물이 화산현무암층을 통과하는 동안 각종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용해되면서 만들어져 물맛이 아주 부드럽고 깨끗한 약알칼리수이다.

특히 국내에서 최고로 강수량이 많아 풍부한 지하수 부존량을 자랑하는 제주도 한라산의 단일수원의 원수(原水)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물맛을 유지하고 있다.

먹는 샘물은 어느 지층에서 여과되느냐에 따라 수질과 물맛이 달라진다.

1백10여회의 화산폭발로 태어난 제주도의 다공질 화산현무암층은 숯이나 활성탄 필터처럼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수십겹의 화산현무암 지층이 거르고 거른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청정자연이 정수하는 화산암반수로 수질이 매우 순수하고 깨끗

하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최초로 제품 생산 뿐만이 아닌 용기, 포장의 생산설비까지 갖춘 일괄 통합생산설비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이고 안전하다.

제주삼다수는 연간 7백여억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제주삼다수는 해마다 시행되는 미국 FDA, 일본 후생성의 까다로운 수질검사기준에 당당히 합격하여 수질(水質)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식품업계

일본 '짝퉁 양반김' 공식 사과

모두 폐기

동원F&B의 양반김 상표를 도용했던 일본 식품 업체가 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동원F&B는 지난 달 13일 일본 하마오토메(横乙女)사가 공문을 보내 양반김 상표 도용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마오토메사는 공문에서 "우리 제품을 동원F&B의 양반김과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품 포장지의 '양반김'이라는 글자는 최근 '조미김'으로 바꿨으며 종전의 포장재는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

동원F&B는 하마오토메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법적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요구한 조건 중 하마오토메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홈페이지에 사과문 3개월 게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또 조미김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새 제품을 보내줄 것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각서도 요구키로 했다.

동원F&B는 올해 3월 초 일본에서 양반김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발견하고 두차례 상표 사용 중지, 공식 사과 등을 하마오토메사에 요구해 왔다.

제이브이엠

의약조제분야 3건 특허취득

약제 자동 포장기의 포장지 절단장치

병원 · 약국 자동조제솔루션 제조업체인 제이브이엠(대표 김준호)은 약제 다발 커팅장치, 약제 자동 포장기의 포장지 절단장치, 약제 자동 포장장치 및 그 장치 카트리지의 카세트 자동인식방법 등 3개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약제 다발 커팅장치'는 자동 정제분류 포장장치에서 생산된 조제약품 패키지를 2차 보관, 검출 및 장치에 보다 효율적인 적취를 위해 절단 및 적재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기기로 JV-UPCE (절단장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품이다.

'약제 자동 포장기의 포장지 절단장치'는 전자동 또는 반자동 조제장비의 자체 절단장치로 절단칼날의 정확성 및 단순화를 이뤘으며, 절단날의 외형적 커버와 안정장치 기능을 함께 하도록 만든 안전커버 동작원리에 관한 특허품이다.

이 제품은 ATDPS(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

템) 및 세미오토 장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된다.

'약제 자동 포장장치 및 그 장치 카트리지의 카세트 자동인식방법'은 약품 탑재 카세트(캐니스트)의 자유로운 위치 이동과 이에 따른 자동인식 프로그램 및 제어시스템이다.

카세트(캐니스트) 및 고정 카트리지의 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ATDPS(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시스템)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솔루션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여타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식품업계
식음료, 리콜 급증
독극물 투입, 포장용기 문제 등

분유, 비타민 음료, 카페라떼, 콜라 등 올해 들어 제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된 음료 리스트다. 최근에는 사상 최대 학교급식 중단 사태를 초래한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식자재'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식품업체들의 리콜이 급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관련 리콜 건수는 49건으로 전년(15건)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다.

최근 들어 식품업체들은 제품의 품질 이상뿐 아니라 외부인의 독극물 투입, 포장 용기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리콜을 하고 있다.

롯데삼강은 올해 5월 내놓은 밀크셰이크 '빠삐코' 가운데 편의점업체 훼미리마트에 납품된 7만~8만 개를 리콜 중이다.

뚜껑 부위에 검은 탄화물이 묻어 있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유통업체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코카콜라는 이달 초 전남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독극물 주입 사건을 계기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코카콜라 1백15만병을 리콜했다.

매일유업도 지난달 말 수도권 편의점에 유통시킨 카페라떼 '마일드맛'과 '모카맛' 8만여개(유효기간 8월16~24일)를 모두 리콜했다. 제조공장에서 유통업체로 배송하는 냉장차량에 이상이 생겨 맛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J푸드시스템은 지난달 발생한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해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느낀다"며 유통된 식자재 리콜과 함께 학교급식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동화약품 일양약품 한보약품 현대약품 등 21개 비타민C 음료 제조 및 수입업체도 올해 4월 시판하던 비타민 음료에서 먹는물 기준치(10ppb) 이상의 벤젠이 검출되자 대부분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 조치했다.

리콜 후에도 고민이 많다. 해당 기업들이 겪는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코카콜라는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마트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독극물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11~14일 1.8L 페트병 코카콜라 매출이 전주

에 비해 40~50% 가량 줄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리콜로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등 유형무형의 손실이 막대하다"며 "식품 위생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전략 간담회
亞·太 매출 18% 성장

한국오라클은 지난 달 11일 삼성동 자사 2층 프리젠테이션 룸에서 애플리케이션 전략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오라클은 2006년 회계연도(2005년 6월~2006년 5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일본에서 약 2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회계연도 보다 18% 성장한 것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기업용 소프트웨어) 신규 라이선스 매출이 69%, 데이터베이스(DB)와 미들웨어 신규 라이선스 매출이 13% 성장했다. 이는 오라클 전세계 신규 라이센스 매출의 19%, 총매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데렉 윌리암스 오라클 아태지역 및 일본 회장은 "2006 회계연도는 오라클의 기념비 적인 해였다"며 "오라클은 경쟁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고 말

▲ 한국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전략 간담회

했다.

그는 "특히 2006회계연도의 4/4분기에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제품에서 획기적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라클이 고객이 원하는 유연성을 갖춘 표준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라클은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의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성장률 모두 선두를 유지했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아태지역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오라클은 라이센스와 서포트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17% 성장, 전체 시장의 47%를 차지해 선두를 지켰다. 성장률과 점유율 면에서 2위와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물류업계
물류비 절감 비상
해운 및 항공 운송비 부담

물류비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수출업체들은 원화 강세로 가만히 앉아서 10% 이상을 손해 보기 일쑤다. 또한 경기위축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짠돌이 경영을 하다 보니 물류비 절감이 우선순위로 떠오른 탓이다.

수출입 업체들은 특히 해운과 항공 운송비 부담이 커졌다. 차량 운송은 업계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용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용차 중개업을 하는 이상수 용차 대표는 "물동량 감소와 경쟁격화로 지난해보다 10~15% 가량 낮은 가격으로 운송을 하는 처지"라며 많은 개인 운송업자들이 원유가격 상승분을 떠안으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해운과 항공 운송은 그렇지 않다. 차량 운송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해운과 항공 운송은 원유 인상분을 운송비에 전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공사와 해운업체들은 유료할증료란 명목으로 유가상승분을 운임에 상당 부분 전가시킨다.

한진해운은 최근 2년 동안 약 3억달러 정도의 연료비 인상 요인이 생겼다. 이 가운데 40% 가량은 운임에 전가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운송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대폭으로 유료할증료를 받고 있는 항공사도 유가인상분을 40% 가량 운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환차손과 함께 이중고에 시달린다. 운송비와 함께 창고 물류비도 만만치 않아 이래저래 원가상승 요인은 많아졌다.

정부쪽에서도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코트라는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국외 물류센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물류업체와 제휴를 통해 현재 10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상태다.

무역협회도 한 때 네덜란드에 공동 물류센터를 세울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 대신 국제물류지원단을 만들어 물류산업 고도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외 물류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 물류업체의 국외 진출도 모색하는 중

이다.

허문구 무역협회 팀장은 "1차적으로 화주들이 3자 물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글로벌 종합물류지원서비스'를 올해 들어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류업체인 한진과 손잡고 올해 4월부터 미국 LA를 중심으로 물류지원에 나섰다. 현재 30여개 중소기업체가 글로벌 종합물류 지원서비스를 받겠다고 회원사로 가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 서비스 가능지역을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용기 예쁜 식·음료 히트
S라인 모양·핑크색 등 감성유혹

최근 용기가 특이하거나 예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같은 내용물 제품이라도 제품용기가 특이하거나 색상 디자인이 뛰어나면 소비자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 식품업계가 신제품 용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빙그레 기능성 발효유 '5색5감'은 세련된 컬러를 강조한 용기를 사용했다.

기존 발효유들이 딱딱한 느낌의 패키지로 기능성을 강조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용기 전체에 도는 핑크색과 노란색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파고 든다.

특히 예쁜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 여성층에 어필

▲ *인기를 끌고 있는 예쁜 식·음료용기*

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유행하는 'S라인'을 형상화시킨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매일유업의 '썬업아삭아삭'은 올해초 용기를 곡선으로 리뉴얼했다.

다이어트 음료인 점과 주요 타깃을 여성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밋밋했던 용기를 S라인 형태로 바꾼 것이다.

해태음료의 신제품인 '썬키스트 스무디N'도 S라인을 형상화한 용기 디자인으로 여성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군것질 겸 술안주 브랜드 '질러'를 컵 모양에 담아 내놓았다.

비닐 포장이나 손을 다칠 위험이 있던 기존의 캔제품과 달리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먹는 테이크 아웃 형태로 휴대가 간편하고 차량 컵홀더에도 쏙 들어간다.

빙그레 마케팅팀 심명섭 과장은 "요즘은 대부분 제품의 질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제품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제 품

(주)삼양사

고급 올리브유 '일노빌레' 출시

(주)삼양사(대표이사 김윤)는 이탈리아 까라페리 브랜드의 엑스트라 버진 프리미엄 올리브유 '일노빌레' (IL NOBILE)를 출시했다.

'일노빌레' 는 올리브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을 압착해 만들어 맛과 향이 풍부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화 예방에 좋은 천연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건강에 좋고 샐러드, 파스타, 소스 등 올리브의 향을 살려주는 요리에 잘 어울린다고 삼양사 측은 밝혔다. 이 제품은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되며 오는 추석에는 1L 제품 2병으로 구성된 고급스러운 목함 포장의 '일노빌레 선물세트' 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품은 1L, 500mL 등 2종류다. 까라페리는 113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태리 엑스트라 버진 브랜드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약 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삼양사는 현재 까라페리 브랜드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일드 올리브유', '유기농 올리브유', '포도씨유', '발삼식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칠성(주)

'마운틴듀 와일드블랙' 출시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이광훈)는 마운틴듀 제품의 다양화로 탄산음료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상큼한 포도 맛의 '마운틴듀 와일드블랙(용량: 250ml 캔, 500ml 페트)' 을 출시했다. 마운틴듀 오리지널 레몬라임 맛과 강렬한 체리 맛의 '코드레드' 에 이어 세 번째로 출시되는 '와일드블랙' 은, 마운틴듀 특유의 짜릿한 맛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큼한 포도 맛이 더해진 저탄산 제품이다. 또한 용기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 마운틴듀가 초록색과 빨강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와일드블랙은 터프한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무한도전 정신을 표현했다.

(주)코리아나

콜라겐 파우더 출시

(주)코리아나대표이사 박찬원) 화장품은 파우더 타입의 에센스인 '코리아나 비타민C 콜라겐 파우더 에센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파우더 가루를 얼굴에 바르면 액상 에센스로 바뀌는 체인저블 제형. 칙칙한 피부와 잔주름, 건조함 등 피부 노화를 개선해 준다. 또 비타민C와 식물성 콜라겐, 예덕나무 추출물이 함유돼 미백, 보습, 주름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총 30일 프로그램으로 양을 조절해 사용하기 쉽도록 6일치씩 소량 포장했다.

(주)녹십자

냉찜질 기능 강화한 '제놀골드' 출시

(주)녹십자(대표이사 조응준)는 냉찜질 기능을 강화한 관절염, 근육통 치료제 '제놀골드'를 출시했다. '제놀골드'는 소염진통 효과가 뛰어난 케토프로펜과 멘톨 성분이 들어있다. 민감한 피부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축성이 좋고 통기성도 뛰어난 무자극 린트포도 사용했다. 물어 젖었을 때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녹십자는 강조했다.

'제놀골드'는 떼어내고 사용하는 이형지 가운데 'S자' 형으로 절개선을 넣어 포장을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기곤 녹십자 OTC본부 부사장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48시간 지속형 패취제 '제놀그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암웨이(주)

햇반 알찬곡밥 출시

한국암웨이(주)(대표이사 박세준)는 12일 CJ㈜와 제휴해 세가지 잡곡이 들어간 '햇반 알찬곡밥'을 출시했다.

100% 국산 쌀과 잡곡 만을 사용해 멥쌀에 발아현미, 찹쌀, 흑미 등 세 가지 잡곡을 조합했다. 싹틔운 현미를 사용해 흰쌀밥처럼 부드러운 밥맛에 흑미의 구수한 맛과 찹쌀의 찰진 맛을 더했다고 암웨이 측은 설명했다. 만들기 번거로운 잡곡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암웨이는 밝혔다.

암웨이 관계자는 "CJ햇반 생산라인의 무균화 포장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며 "3일 내에 찧은 좋은 품질의 쌀을 압력밥솥의 원리로 지어 고슬고슬하고 찰진 밥맛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6개, 24개들이 묶음으로 판매한다.

동화약품공업(주)

훼타민 출시

동화약품공업(주)(대표이사 윤길준)은 철 · 엽산 함유 건강기능식품인 '훼타민 철 · 엽산 보충'를 시판했다.

이 제품은 철, 엽산, 비타민C, 레몬 분말, 서양자두인 프룬의 추출물을 함유해 임산부 및 수유부, 다이어트 여성, 청소년 등 철분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또 레몬 분말과 푸룬 추출물이 들어 있어 철분제 특유의 비릿한 맛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과립 형태로 한 회 분량이 한 포씩 개별 포장돼 물 없이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오비맥주(주)

카스 냉장고 전용 팩 출시

오비맥주(주)대표이사 김준영)는 여름철을 맞아 '카스 냉장고 전용 팩' 을 출시했다. 캔 맥주 355㎖짜리 12개가 한 팩에 담겨 있어 절취선을 따라 팩을 개봉하면 한 캔씩 굴러나와 손쉽게 꺼내 마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출고가는 팩당 1만3천6백원.

(주)LG생활건강

더블리치 맥스루미넌트 출시

모발도 피부의 한 부분이다 보니 강한 자외선을 많이 쐬면 모발 노화도 촉진된다.

더욱이 염색이 보편화한 요즘, 약해진 모발에 내리 쬐는 자외선은 머릿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샴푸와 헤어케어류를 고를 때에도 자외선 차단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LG생활건강 더블리치 맥스루미넌트' 샴푸에는 UV를 흡수하는 솔라머(solamer) 성분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더블리치 맥스루미넌트 UV 프로텍션' 은 여름 한정판으로 특별 제작됐다.

자외선B(UVB)를 64%까지 차단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UV 프로텍션 헤어 미스트' 를 샴푸 600㎖와 함께 넣어 특별 기획세트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기존 샴푸 600㎖와 동일한 7천2백원이다.

그 동안 쌓이는 빨래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분말세제를 가져가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많다. 'LG생활건강 테크 탭스' 는 1회 세탁시 필요한 세제 양을 압축하여 24회분(1kg)으로 개별 포장한 세탁세제로 휴가지에 들고 가기 편리하다.

CJ(주)

백설 행복한 콩 순두부 출시

CJ(주)(대표이사 김주형)는 소포제와 유화제 등 인공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은 웰빙두부 '백설 행복한 콩 순두부'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저온에서 콩을 불리고 숙성, 응고시키기는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들었다. 100% 국산콩을 사용하고 정제간수만을 사용해 전통 순두부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다.

콩깍지 모양을 형상화한 용기형 포장 디자인에 이지필 공법을 적용해 제품을 개봉할 때 순두부가 튀거나 모양이 부서지는 단점을 개선했다.

(주)KT&G

'인디고 에피소드 2' 출시

(주)KT&G(대표이사 곽영호)는 '톡톡 튀는 패키지 디자인을 앞세운 '인디고 에피소드 2'를 출시했다.

지난 2005년 4월 타르 1㎎ 제품으로 출시된 '인디고'(소비자가격 2천500원)의 리뉴얼 제품으로 포장에 감광효과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겉포장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평상시 보이지 않던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나는 등 국산 담배에서는 최초로 시도됐다.

KT&G측은 최근 소비자 기호가 초저타르로 이동하고 있고, 외국 경쟁사들도 동일한 컨셉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함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제품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감광효과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인디고 에피소드2'는 자외선이 없는 실내에서는 그냥 인디고 심볼(상상의 새 '키샤')만 보일 뿐이지만 실외에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 마치 숨은 그림이 나타나듯 전혀 다른 패키지로 변한다

(주)나드리

나드리 선블록 티슈 SPF15 출시

(주)나드리(대표이사 황정기)는 티슈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 '나드리 선블록 티슈 SPF15'를 출시했다. "이제 간편히 티슈 한 장으로 자외선을 막는다!!"라는 모토로 출시된 '나드리 선블록 티슈 SPF15'는 기존 바르는 선크림과 달리 붙이는 티슈 형태로 끈적임이 없고 1회용 티슈가 낱개로 포장돼 사용과 휴대가 간편하다.

특히 레저 활동 시 노출되는 부위에 티슈만 문질러 주면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고 끈적임이 없어 골프, 등산, 조깅 등 레포츠를 하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또 국내 최초 티슈 타입의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발명특허 제10-0189689호)으로서 에델바이스와 화이트 릴리 추출물이 함유돼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 가격은 1만5천원선(1팩 8장입).

(주)오토닉스

BWP 20 시리즈 출시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 실현을 목표로 개발한 초박형 플라스틱 케이스를 채용한 에리어 센서(다광축 포토 센서) 신제품 BWP 시리즈 8종을 출시했다. BWP 시리즈는 자체 개발한 고정밀 초박형 프레넬 렌즈와 플라스틱 케이스를 채용하여 13㎜의 슬림한 몸체로 설계된 에리어 센서로서 설치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동작 표시등을 양 측면에 배치함으로써 작업 동작 식별이 더욱 용이해졌다. 또한, 센서의 작동 조절이 쉽도록 DIP 스위치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빛(光)을 활용한 포토센서의 생명은 렌즈로서, 렌즈 설계 가공 기술이 센서의 광학특성 및 신뢰성을 좌우한다. 동 제

품에 장착한 초정밀 프레넬 렌즈는 포토센서 렌즈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오토닉스가 설계 및 개발했다. 프레넬 렌즈를 장착한 (주)오토닉스의 BWP 시리즈는 외산보다도 뛰어난 광학 검출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실현했다.

BWP 시리즈는 기존 일반 에리어 센서가 알루미늄 본체를 채용한데 반해, 13㎜ 초박형 플라스틱 케이스와 프레넬 렌즈의 채용으로 설치 공간을 극소화하고 에리어 센서 평균 응답 속도가 12ms 내외였던 점을 비교해볼 때 동급 최고 수준의 빠른 응답 속도(Max. 7ms 이내)를 실현했다.

(주)오토닉스

PSB-C 시리즈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가 콘넥터 타입 압력센서 PSB-C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PSB 시리즈는 배선인출 타입 8모델 외에, 콘넥터 타입의 신제품 PSB-C 시리즈 8모델 출시를 통해 간편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져 작업 편의성의 향상은 물론, 총 16모델을 갖춤으로써 사용자 선택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한편, PSB 시리즈는 분해능 1/1000의 고정도 압력 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4가지 출력모드를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압력 단위 변환이 가능하며, 보기 쉬운 고휘도 적색 LED를 채용하여 작업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해왔다.

(주)풀무원

풀무원 담아나온 순두부 출시

(주)풀무원(대표이사 이규석)은 국내 최초로 용기에 담긴 '풀무원 담아나온 순두부'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풀무원 담아나온 순두부'는 한 손에 쏙 잡히는 용기 타입의 제품으로 찌개를 끓일 때 튀지 않고 깔끔하게 원하는 만큼 손쉽게 떠 넣을 수 있어 간편하다. 농도 진한 두유로 만들어 조리 시 순두부가 쉽게 풀어지지 않고, 국물이 잘 배어 더욱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순두부 찌개를 끓일 수 있다.

풀무원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마친 100% 국산콩을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이 제품은 뚝배기에

순두부 양념장을 넣고 물과 함께 끓인 후 '풀무원 담아나온 순두부'를 넣고 센불로 4분만 끓여주면 쉽게 풀어지지 않고 양념이 알맞게 배인 맛있는 순두부 찌개를 만들 수 있다.

풀무원의 김세라 두부PM은 "기존의 튜브 형태 순두부 제품들이 조리 시 잘 튀고 양 조절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며 "이번에 출시한 '담아나온 순두부'처럼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두부 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주)

청정원 튜브형 순창 찰고추장, 매운고추장 세트 출시

대상(주)(대표이사 임동인)청정원은 본격적인 나들이, 휴가철을 맞아 '튜브형 순창고추장 세트'를 출시했다.

튜브형 고추장세트는 휴대와 보관이 쉽도록 소용량(60g) 튜브용기에 담아 야외에서도 사용이 간편하고 해외여행시 휴대하기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튜브형 순창고추장은 기존에 판매되던 '쇠고기 볶음고추장'에 추가로 '찰고추장', '매운고추장' 2가지 제품을 새로이 선보인다.

'청정원 순창 쇠고기볶음 고추장'은 순창고추장에 쇠고기 정육, 마늘 등 갖은 양념을 넣어 반찬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 수 있고 '청정원 순창 매운고추장'은 순창고추장에 국산 청양고추를 첨가해 더욱 맵고 칼칼하다. 청정원 순창고추장 마케팅팀 양동철 과장은 "이번 튜브형 소용량 고추장의 출시와 함께 휴가나 해외여행시 고추장을 휴대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인 7~8월에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상 청정원 순창 튜브형고추장 세트는 각 60g 3개들이 포장으로 가격은 찰고추장 세트 3천9백원, 매운고추장 세트 4천1백원, 쇠고기볶음고추장 세트 4천1백원이다.

청정원 순창 고추장은 2005년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고추장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